

민주적 사회 형성의 과제

지금 우리는 현실 앞에서 숙연히 머리를 숙이고 참회의 기도를 올려야 할 때이다. 좌절과 불안 속에서 오늘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고요히 성찰을 해야 할 시기에 이른 것 같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 깊은 자기 성찰을 거쳐야만 현실적인 힘을 가져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 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무던히도 많은 곡절을 겪어 왔었다. 이러한 민족사적인 곡절을 겪어오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25년이라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교회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 지내 왔었다. 그 귀중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그대로 놓쳐 버렸고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는 사회의 타성 속에서 잠자고 있지 않는가?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현실 앞에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인가? 우리의 현실 속에 복음의 씨가 열매 맺는다는 일을 너무도 쉽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먼저 회개해야 한다. 오늘의 모든 사태를 고발하기에 앞서 이러한 사태가 이루어지도록 한데 대한 깊은 자책을 느껴야만 하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국가라고 자부하고 또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바쳤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손쉽게 주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깊은 성찰과 투쟁을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자인해야만 한다. 민족적인 해방도 주어진 해방이지, 싸

워서 빼앗은 해방으로 생각지를 았았다. 전쟁과 혁명, 그리고 술한 정치적 악순환 속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나약한 어린 아기가 온갖 상처를 받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이 아기가 스스로 잘 자라나리라는 안의한 생각을 해 았었다. 그러나 상처투성이인 아기는 이제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이 누구의 탓인가? 남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교회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회개해야만 한다. 기독교 신앙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과 동일시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서양 신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삼킨 우리 나라 신학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주의가 성장하기도 전에, 서구 민주주의의 부정면만을 강조한 학자들도 이 기회에 한 차례 반성해 볼 만한 일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민주주의의 정치 이념과 혼동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구별은 되어도 분리되어질 수는 없다. 우리가 개념적인 유희에 시간을 낭비한 사이에 벌써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상처를 입고 빈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제 무슨 대안이 나올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집년 전에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라는 것이 한참 문제가 되었었다. 기독교 사상지에서 여러 번 이 문제를 특점으로 해서 논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단군 신화 논쟁이 나왔고, 한국 종교와 기독교의 접촉을 분석하는 연구도 계속되었다. 10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또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문제도 대두되었다. 이번에는 이 토착화 문제를 둘러싸고 무슨 이론이 나올지 모르겠다. 또 단군 신화가 새옷을 입고 나올 것만 같다. 한국의 고유 사상을 재음미하고 주체적인 사고를 권장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전통을 재발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

다. 무턱대고 서구 학문의 내용을 잘 소화시키지도 못한채 떠드는 일은 삼가야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고유 문화를, 전통적인 가치관을 재음미하는 것으로만 처리되어 지지 않는다.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나 정치적 이념을 조화시켜서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 우리의 착오가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캐고 보면 우리의 <역사 의식>이라는 한 점에 촛점이 모아진다. 토착화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지만 우리가 오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느냐 하는데 모든 것이 좌우된다. 오늘의 역사가 단순한 시간적인 반복이나 우연한 사건의 연속인가,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바닥에, 배후에 어떤 흐름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것인가? 모든 교회의 선교 활동이나 에큐메니칼 프로그램의 바탕에는 이러한 역사 의식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나 철학이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의 선교는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언어의 선포가 아니다. 역사의 흐름과 방향에 접촉되지 않는 선교는 다만 <울리는 팽파리 소리>에 불과하다. 역사 의식이 없는 선교는 하나의 행사요, 시간과 정력의 낭비로 끝난다.

오늘의 현실 앞에서 숙연한 자세로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깊은 자책과 반성을 하는 것은 공연히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신구약 성서의 말씀에 돌아가서 성서적인 현실 앞에서 자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오늘날만큼 구약성서를 다시 읽고, 재해석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때도 드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중동 지역을 둘러싼 토착 종교 신앙은 어떤 역사

를 형성했던가? 적어도 오늘의 현실을 선교의 입장에서 다루려고 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주요한 사건과 역사 의식은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쳐 서구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 특히 아시아를 둘러싼 서방 문화와 선교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의의를 지니는 일이다.

구약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면하게 흐르는 문제 중에 중요한 것은 <王權의 非神話化>라는 것이다. 에스겔 28 장에 보면 벌써 그 당시 중동 지방의 토착적인 왕권 신화에 대한 도전이 엿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드로 왕의 교만에 대한 에스겔 선지의 항거이었지만 이것은 또한 바벨론 신화 속에 토착화된 왕권 신화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에스겔 선지가 드로 왕을 향해서 퍼붓는 항거의 소리는 바벨탑의 이야기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데가 있다.

구약성서에 있어서 바벨탑의 신화는 왕권 신화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난과 항거의 표본이 되어 있다. 선지자들은 특히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은 왕권을 神化하는 데 대해서 거듭 부정하고 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의 王權 神話에서는, 신과 王權은 서로 일체로 동일시되어 있었다. 애굽의 바로 왕이나 메소포타미아의 王權 神話도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王은 이 우주를 지배하는 힘과, 이 사회 안에 있는 인간 생활을 잘 조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은 바로 이러한 神格化된 王權을 부정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받을 디던 것으로 애굽의 통치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믿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

서 직면한 것이 바로 고대 중동의 토착적인 신화요 정치 형태를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문화적인 차별, 종교적인 신앙의 상이성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 절충, 조화의 작용을 거쳐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문명국으로서 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중동 지역에 토착화되어진 역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사를 주는 것이다. 정치와 종교와의 분리라는 원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엿보인다. 이스라엘은 자체의 왕국과 왕권을 설정할 때, 애굽이나 바벨론의 神話的인 王權을 거부하고 어디까지나 非神話的인 王權, 즉 사람이 세운 王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책임에 속한다는 신앙을 지속했다. 사실 구약의 예언자 신앙은 이러한 고대 중동 제국가의 神話的 王權을 非神話化하는 작업과 투쟁의 역사였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王權에는 고대 중동 지역 국가의 신화적인 요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신화적인 王權에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예언자들의 신랄한 항거에 부딪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王權이 비신화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神權으로 믿어졌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王國과 王權이 지니는 역설이 있다. 이 역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설새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왔던 것이다. 王權의 非神話化와 동시에 王權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한 은사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王權의 역사는 죄와 파피의 역사요, 동시에 새롭게 창조해 가는 역사이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王權 信仰은 중세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혁명을 초래했다. 서구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기독교 국가의 흥망사는 결국 땅 위의 王權과 하나님의 주권과의 영합 아니면 충돌의 역사이다. 이러한 충돌의 역사는 드디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서구 선교의 역사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의 선교는 서구 문명, 특히 서구의 식민지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었다. 오늘날 인도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즉 인도의 국가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발생 배후에는 이러한 서구 식민주의와 서구의 선교의 실패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 적어도 인도의 경우에 있어서, 근대 국가로서 등장하는데 기독교 선교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기독교 신앙이 인도의 근대 정신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다. 토착적인 힌두교의 개혁을 초래하는 간접적인 작용을 주었다. 19세기 초엽에 유럽의 제몽 사상을 도입하여 힌두교를 개혁한 람 모한 로이(Ram Mohan Roy, 1772—1833)는 기독교를 힌두교 개혁의 무기로 삼았던 것이다. 서구의 교육 제도를 제창하는 사회 제도 개혁, 여성의 참정권 주장 등을 주장했으나 결국 토착적인 힌두교와의 절충 종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절충주의적인 종교 개념이 결국 인도에 있어서 정치적 비신화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간디의 독립운동은 그의 종교적 신앙과 국가관에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세속 국가를 통일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는 모든 종교, 특히 힌두교와 기독교를 상대화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종교의 상대화는 세속 국가를, 즉 통일된 독립 인도 국가를 형성하는 정신적 기반을 이루었지만 서구 민주주의의 기틀을 인도 국가에 부식시키는 데는 실패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의 교훈이다. 오늘

날 인도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몹시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자유의 근원에는 신교의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결코 그 제도나 헌법을 수입하는 것으로 아시아에 도입되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구체적인 행동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도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다.

19 세기 초엽에는 서구 문명의 압력이 중국에 가해졌다. 중국에 가해진 서구의 압력은 결코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상업과 해운업, 그리고 기독교 선교라는 압력이었다. 1842 년까지만 해도 서구의 상인과 선교사들은 廣東의 제한 지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16 세기에 중국에 전파된 예수회 선교만이, 서구의 상업주의와 결합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될 수가 있었다. 지식층에 파고 들어, 기독교 신앙과 유교와의 조화를 시도한 예수회 선교도 역시 19 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별다른 선교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19 세기 중엽에 중국을 뒤흔든 태평 혁명이 없었던들, 기독교는 영영 중국에서 지속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태평 혁명은 중국의 전부를 뒤흔들었다. 태평 혁명은 중국 고유의 농민 반란이 20 세기의 혁명 형태를 발전시킨 중대한 사건이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이 1억에 달하고, 희생자만도 2천만명에 달한 것이다.

태평 혁명은 아편 전쟁 직후에 일어났고, 영국군과 만주군과의 격렬한 전투 속에서 계속되다가 1858년에 드디어 종말을 보았다. 태평 혁명은 중국의 정치, 문화, 사회적인 배경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혁명이 사실은 중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부흥 운동과 관계가 깊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이 혁명이 비록 실패로 끝났

지만 중국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유교적인 전통 속에 토착화시키는 방식과 과정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골든 장군이 영국군을 이끌고 이 기독교적인 혁명을 무찔렀다는 것은 정말로 역설적인 일이다. 경건한 크리스천인 골든 장군이, 영국의 근시안적인 상업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혁명의 진압에 지휘를 하였던 것이다.

중공의 승리는 태평 혁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 태평 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백년이 지난 후에 공산주의 혁명이 중국에서 패권을 잡게 되었다. 모택동과 그의 일파는 태평 혁명을 철저하게 연구했다고 한다. 즉 서구 세계의 근시안적 상업주의요, 서구 기독교 선교의 무기력한 반응을 저들은 서구 문명과 기독교 자체 안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했다. 영국 정부는 만주를 교역 상대로 지배하려고 했고,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은 기독교와 유교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이에, 태평 혁명을 추진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의 전통적 신앙을 배격하는 급진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었다. 그와 동시에 태평 혁명은 중국 국민들의 정치적 해방의 열망에 어느 정도 호응했던 것이다. 모택동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공산주의 전략에 역행하여 농민을 조직화했고, 태평 혁명이 성공했던 자기 고향인 호남성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시작했던 것이다. 세례 교인이었던 손문이나 장계석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반 기독교 신앙의 기수였던 모택동이 이 태평 기독교 혁명의 정신과 전략에서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배웠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인도와 중국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혁명이든, 공산주의적인

혁명이든, 아시아의 토착적인 정치 신화를 비신화화하지 않는 한, 언제나 전제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차 대전이 끝난지도 사반세기가 지났고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이 식민지로서의 처지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근대화의 과정을 거쳐 제 3의 세계를 형성한 오늘에 이르도록 왜 서구 민주주의가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타일랜드,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모든 나라가 서구 민주주의의 제도와 헌법을 채택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비 민주적인 정치 형태로 현상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아시아에 있어서 기독교 선교의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토착 종교의 가치관과의 대결, 또는 축매 작용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동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써 토착적인 고대 중동 제국의 신화와 대결하는 과정을 상기할 만한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창조적인 축매 작용은 결코 동화되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험 속에서 찾아내고,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王權의 神話의 베일을 벗기고, 온전한 世俗 國家를 형성하며, 모든 神話的인 요소를 王權에서 박탈하는 노력과 싸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世俗 國家와 信仰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정짓고, 천명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과제는 모든 선교 부흥이나 교세 확장에 앞서 우리가 갈망하는 非神話的 世俗 國家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어떤 설교나 논

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것을 듣거나 보지 못했다. 이러한 확고한 민주적인 확신이 없는 교세 확장은 결국 종이 호랑이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앞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중심으로 한 선교와 봉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언제나 오늘의 세계 역사, 특히 아시아의 상황 속에 부름을 받은 교회의 역사 의식을 창달한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오늘 이 시간 한국 안에서 선교적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성찰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도 용납될 수 없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神話的인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치 권력을 하루 속히 세속화하고, 교회는 어디까지나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참여를 해야만 할 것이다. 예언자적 입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유와 정의이다. 우리의 자유는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쟁취한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막아야겠다.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간 얼마나 우리는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철저한 참회를 해야 하고 자책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는 자유를 쟁취할 용기가 결여되었고 자유가 남용되고 오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게을리 했다는 점이다. 이제 자유 민주주의가 빈사 상태에 도달한 데 대하여 우리 자신들도 한가닥의 책임을 느낀다.

모든 자유의 근원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 신앙의 자유는 신앙의 책임이 수반된다. 그간 우리는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이 자유에 선행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

의 무력과 좌절을 실감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압력보다 교회 내부,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소영웅주의,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데서 생기는 상호 불신 때문에 생겨지는 좌절이다. 더 근본적으로 오늘의 역사에 대한 같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 때문에 스스로가 약체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새해에 접어들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총 참회를 하는 운동이다. 이것은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일에 총집결해야 하는 노력을 그동안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참회하는 운동인 동시에, 王權의 非神話化라는 역사 의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둔한 응답을 회개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도나 중국에서 겪은 기독교 선교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 나라에서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겠다. 근대사에서 벌어진 모든 정치적 혁명 배후에는 언제나 기독교 선교의 맹목, 근시안적인 판단, 무위, 무능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근대 모든 국제, 국내 보장의 바닥에는 종교적 편견, 신화적인 광신주의가 깔려있다.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화적인 편견을 분석하고, 민주적인 자유를 쟁취하는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교회가 앞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이루어야 하겠고, 또 교회 공동체의 역사 의식을 계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해에 교회, 특히 연합 사업이 해야 할 과제가 많겠지만은 우리는 모든 전진을 일단 중지하고라도 우리 자신이 자성하고, 새로운 각오와 용기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일이 가장 긴급하다고 믿는다.